

# [환자가 만드는 의료서비스]

환자도 소비자이다. 또한 의료행위도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다른 서비스업에 비하면 소비자인 환자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요즘 많은 병원들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환자의 목소리가 반영됨을 실감하지 못한다.

앞으로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정착되길 기대하며 불합리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환자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고발코너>를 마련했다.

## ❖ 검사 및 진료 태만으로 폐렴을 정상으로 진단 사례 ❖

강모 씨(68세)는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돼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고열이 나고 기침과 가슴통증이 발생했다. 담당의사는 증상호소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설명하며 복부의 단순 방사선 촬영을 지시했다.

필름 판독 후 변비가 있다고 해 약물을 투여 받았으나 기침, 가래, 발열이 지속되고 호흡곤란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별 다른 처치가 이루어 지지 않아 뇌경색에 대한 한방치료를 받기 위해 퇴원했다.

다음날 다른 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뇌경색은 악화되지 않았으나 급성 폐렴이 발생된 것으로 진단되어 20여 일 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강씨는 가슴통증과 지속적인 기침·고열을 호소했으나 청진이나 촉진을 하지 않고 증상과 무관한 복부의 사진만 찍게 해 폐렴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책임을 요구했다.

담당의사는 입원기간이 짧고, 환자의 증상을 완전히 파악하기 전에 자의로 퇴원해 폐렴을 진단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 >>>처리 결과는 이러했다

입원 당일 흉부 X-선에는 폐렴의 증상이 보이지 않았으나 3일 후 복부 X-선에서 폐렴의 증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는 병원에서 복부필름을 잘못 해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한 지속적인 환자의 증상 호소를 소홀히 여겨 폐렴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측에서 방사선 필름 판독 잘못과 진료 소홀의 책임을 인정하여 폐렴치료에 소요된 경비 일체를 배상했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 ❖ 췌장암을 장염으로 진단해 사망 사례 ❖

윤모 씨(65세)는 복부통증과 설사가 지속돼 위 내시경 및 복부 초음파와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장염으로 진단됐다. 한 달간 통원치료를 통해 장염에 대한 약을 복용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복통과 설사가 더 심해졌다.

입원해 대장검사를 받은 결과, 만성염증으로 진단되었다. 보호자는 담당의에게 복부 CT검사를 요구했으나 필요하지 않다며 거절당했다.

다른 병원으로 가서 검사 받은 결과 췌장암 말기였고 간까지 전이 된 상태였다. 환자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진단돼 통증완화 조치만 받다가 사망했다.

유가족은 지속적인 복부통증 및 설사의 원인을 단순한 장염으로 생각해 추가검사를 하지 않아 정확한 진단과 처치를 받지 못했다며, 신변정리 기회상실, 기대수명 단축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의사는 췌장암은 위치 상 발견하기 어렵고 특별한 증상도 없어, 진단이 어려우며 치료결과도 좋지 않아 여명기간 연장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 》》》처리 결과는 이러했다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질환 등 비정상적 소견이 의심되었고, 지속적인 장염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의 개선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복부 CT 등 추가 정밀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측이 적극적인 검사를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배상했다. 췌장암은 특별한 증상이 별로 없고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환자의 90%가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암이 퍼진 후에 병원을 방문하는 사례가 많다.

복부통증, 황달과 오심, 설사, 체중감소의 증상이 있으나 일반 검사로 진단하기 어려우며 복부 초음파 및 컴퓨터 촬영에 의해서만 진단 될 수 있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각 병원에서 겪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함께 나누는 코너를 마련합니다.

물론 당뇨인에게 소개해 널리 알리고 싶은 병의원이나 의료진이 있으면 추천도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사연은 타인에게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으며 신변을 보호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사무국: 02-771-8542, 080-900-1119

주소: 서울시 중구 회현동 3가 11-3 세대빌딩 1003호 (사)한국당뇨협회 편집부